

Intuitive 360 Korea 2026

7. 25(Sat), 8:00 AM
Walkerhill Seoul Hotel,
Vista Hall (B2)



INTUITIVE

Intuitive 360 Korea 2026

Korea Executive Summit이 인튜이티브의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인 Intuitive 360 Korea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최됩니다.

이번 Intuitive 360 Korea는 '디지털 전환이 여는 최소침습수술의 미래'를 주제로, 병원 경영진과 임상·운영 리더 여러분과 함께 최신 의료 트렌드를 살펴보고 병원 운영 및 미래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료 현장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조망하고,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세요.

Speakers



Moderator

한상욱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Keynote Speaker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Keynote Speaker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eynote Speaker

강상욱

연세 암병원 부원장



Moderator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US Speaker

Mr. Fahd Benjalil

CFO Chief Financial and
Operating Officer,
Sharp Coronado Hospital



US Speaker

Dr. Pamela Lee, MD

Chair, Department of Surgery,
Sharp Memorial Hospital



Panel speaker

김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이사장



Panel speaker

신용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교수 / 간담체 전문의 /
로봇수술센터장



Moderator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Speaker

오병석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부장



Speaker

한명월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



Speaker

김홍관

삼성서울병원 교수 / 폐식도외과 과장 /
폐식도암센터 센터장

Agenda

Time	Topic	Speaker
08:00-08:30	Registration: Intuitive Ecosystem Showcase	
08:30-08:40	축사	Intuitive
Session 1. 최소침습수술 혁신이 이끄는 미래		좌장: 한상욱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08:40-09:10	Keynote 1. 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언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09:10-09:40	Keynote 2. 로봇수술의 가치 재정의: 기술 혁신과 일반 진료로의 합리적 이행 과정 고찰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09:40-10:10	Keynote 3. 의료 혁신의 길: 세브란스병원 로봇 보조 수술 5만례 달성의 의미와 미래 비전	강상욱 연세암병원 부원장
10:10-10:30	Break: Intuitive Ecosystem Showcase	
Session 2. 디지털 전환의 힘: 최소침습수술의 새로운 가능성		좌장: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10:30-11:20	시가 이끄는 병원 운영: 미국의 사례 Sharp Health System Digitally Enabled Robotic Program	Mr. Fahd Benjalil CFO/COO, Sharp Coronado Hospital Dr. Pamela Lee, MD Chair, Department of Surgery, Sharp Memorial Hospital
11:20-12:40	패널 토의: 디지털 전환이 여는 로봇 보조 수술	좌장: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패널: 김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이사장 신용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교수 / 간담체 전문의 / 로봇수술센터장 Mr. Fahd Benjalil CFO/COO, Sharp Coronado Hospital Dr. Pamela Lee, MD Chair, Department of Surgery, Sharp Memorial Hospital 최용범 인튜이티브 코리아 대표
12:40-13:40	Lunch: Intuitive Ecosystem Showcase	
Session 3. 병원 혁신사례		좌장: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13:40-14:00	지필공 달성을 위한 로봇 보조 수술의 가치: 광주보훈병원 사례 발표	오병석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부장
14:00-14:20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 울산대병원 로봇 수술 12년	한명월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
14:20-14:40	Epicenter에서 표준으로: 전략적 투자가 만든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수술	김홍관 삼성서울병원 교수 / 폐식도외과 과장 / 폐식도암센터 센터장
14:40-15:00	패널 세션	좌장: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패널: 오병석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부장 한명월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 김홍관 삼성서울병원 교수 / 폐식도외과 과장 / 폐식도암센터 센터장
15:00-15:10	Closing	Intuitive
15:10-16:50	Intuitive Ecosystem Showcase	

Keynote Speakers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기획, 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담당하며 주요 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고, 2020년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며,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모범 대응 사례로 평가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국민 건강보험법, 의료기기산업법 등 주요 법·제도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신의료 기술 평가, 혁신 의료기기 지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혁신 분야에서도 폭넓은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장관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지역 발전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으로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정책 및 규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한광

MD, PhD, FACS, Hon ASA, Hon ESA & Hon JSES
국립암센터 원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한광 원장은 서울대병원 위암 센터에서 누적 수술 3만 건, 합병증률 12.4%, 사망률 0.099%의 성과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위암 수술 권위자로 자리매김하였고, 유럽 등 해외 의료진 455명이 위암수술 훈련을 받으려 올 만큼 글로벌 위암외과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위암 치료 관련 여러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RCT)에 참여했으며, 대한복강경위장수술학회(KLASS) 창립 회장으로서 위암 최소침습수술, 특히 유문보존위절제술(기능보존위절제술)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위암 외과혁신, 발생기전, 약물치료, 가족성 위암, 바이오마커, 위암 PDX 모델 개발입니다. 현재 국제위암협회 사무총장, 및 아시아 종양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외과학회 명예회원, 유럽외과학회 명예회원, 일본내시경외과학회 명예국제회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KAST) 회원입니다. 420회 이상의 국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국립 암센터 제 9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국가 암관리 정책과 글로벌 암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강상욱

연세암병원 부원장

강상욱 부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 교수이자 연세 암병원 부원장으로, 갑상선암·부갑상선질환·내분비외과를 전문으로 하며 미국 Tulane University 외과 종양학 펠로우십(2015-2017)을 통해 국제적 임상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기획부실장을 역임하며 병원 전략 기획과 운영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연세 암병원 부원장으로서 임상과 경영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갑상선암 로봇 보조 수술(2007년)을 선도한 연세 암병원 갑상선암센터의 핵심 전문가로, 세브란스병원의 세계 최초 단일기관 로봇 보조 수술 5만례 달성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입니다.

Moderator



한상욱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의료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를 취득한 위장관외과 전문의로, 현재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재직하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암과 위·식도역류질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며, 복강경 및 로봇 보조 수술을 포함한 최소침습 위암 수술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을 역임하며 임상, 연구, 병원 운영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미국 국립암센터 연수를 통해 국제적 임상·연구 역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회장, 대한 위암학회 이사장,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대한중양외과학회 이사장, 대한 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위암 최소침습수술의 발전과 표준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구자성 이사장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한 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 현재는 5개 종합병원, 7개 요양병원을 포함한 12개 네트워크 병원, 총 3400병상 규모의 병원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부산인공지능융합기술협회장,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DHP)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의사-전략가-경영자를 겸비한 이례적 이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양의료원장

이정재 중양의료원장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현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양의료원장으로서 중양의료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산부인과 과장, 외과계 진료부장,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을 거쳐 서울병원 부원장 및 병원장을 역임하며 임상과 병원 운영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초대회장, 대한수혈대체의학회 회장, 대한자궁근종연구회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상임이사, 아시아환자혈액관리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학회와 의료계 활동을 폭넓게 이끌어 왔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성과 병원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이 환자 중심 의료를 구현하고 선도적인 의료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US Speakers



Mr. Fahd Benjalil

CFO/COO, Sharp Coronado Hospital

Mr. Fahd Benjalil은 MBA, FHFMA 자격을 보유한 헬스케어 경영 전문가로, 현재 Sharp Coronado Hospital의 최고재무운영책임자(CFO)로 재직 중입니다. Sharp HealthCare 시스템 내에서 10년 이상 병원 재무, 운영, 전략적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급성기 병동과 장기요양 캠퍼스 전체의 임상·재무·운영 성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병원의 순 의료수익(Net Patient Revenue)은 8,800만 달러에서 1억 5,60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술 건수를 60%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직원과 의료진의 참여도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환자실(ICU) 확장, 응급실 증축, 외래수술센터 신설 등 주요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Dr. Pamela Lee, MD

Chair, Department of Surgery, Sharp Memorial Hospital

Dr. Pamela Lee는 San Diego Sharp Rees-Stealy Medical Group의 서전 파트너이자 대장항문외과 및 외과 전문의로, 미국 외과학회(FACS) 및 미국대장항문학회(FASCRS) 정회원입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펠로우십 수련을 받았으며, 10년 이상 복잡한 급성기 외과 수술, 대장항문 질환 치료, 고난도 최소 침습 수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Sharp Memorial Hospital 외과 과장 및 Sharp Rees-Stealy 외과 과장을 맡으며 리더십과 임상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정 받는 로봇 보조 수술 전문가로서 Sharp Memorial Robotic Steering Committee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튜이티브 교육 교수진으로 코스 디렉터 및 감독관(프록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의 질 향상, ERAS, 외과적 혁신에 중점을 둔 리더입니다.

Panel speakers



김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이사장

김진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박사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 호주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Royal Prince Alfred Hospital, RPA) 병원 연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병원 사회공헌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15년간 약 3,000례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하며 이 분야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연간 300~400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고난도 대장암 수술의 명의입니다. 재발암·전이암 등 난치성 대장암을 주로 로봇 보조 수술 및 복강경 수술로 치료하며, 국외 수술 시연을 통해 전 세계 의료진에게 고난도 수술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과 로봇수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 내시경 로봇외과학회 이사장, 복강경 대장 수술 연구회 회장 등 학회 활동을 통해 국내 로봇 보조 수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교수 / 간담췌 전문의 / 로봇수술센터장

신용찬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전공의, 외과 간담췌분과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로봇 수술센터장을 겸임하며 병원의 최소 침습 수술 역량을 총괄하고 있으며, 간, 담낭 및 담도질환, 췌장질환, 로봇 보조 수술을 전문으로 합니다. 대한외과학회 정회원·한국 간담췌 외과학회 평생회원·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평생회원·한국췌장외과 연구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점 병원에서 로봇 보조 수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실전형 임상 리더입니다.

Speakers



오병석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부장

오병석 부장은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로봇 보조 수술을 도입 ·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병원에서 로봇 보조 수술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한 사례의 주인공으로, 의료 형평성과 접근성 확대의 관점에서 로봇 보조 수술의 현실적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임상 전문가입니다.



한명월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

한명월 부원장은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이비인후과 교수로, 울산대학교 의학과 및 의학 대학원(석사 · 박사)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 전공의 · 임상강사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이비인후과 · 두경부외과에서 Research Fellow를 역임하였습니다. 갑상선암 · 갑상선 로봇 보조 수술 · 두경부암 · 음성장애를 전문으로 하며, 다빈치 SP 로봇 보조 수술 공인 감독관(프록터)으로 선정되어 국내 다수 의료진에게 갑상선 로봇 보조 수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 하며, 지역 거점 대학병원에서 최소 침습 로봇 보조 수술의 임상 표준을 확립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해 온 리더입니다.



김 홍 관

삼성서울병원 교수 / 폐식도외과 과장 / 폐식도암센터 센터장

김홍관 교수는 흉강경 · 로봇 보조 수술을 활용한 폐암-식도암 수술 전문가로, 2023년부터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암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흉부외과 분야에서 아시아 최초로 폐식도외과 전용 다빈치 수술 로봇을 도입하여 2년 사이 연간 로봇 보조 수술 건수를 약 5배 이상 성장시켰으며, 2025년 5월 기준 누적 1,000례를 돌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 ·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폐식도외과 분야 인튜이티브 로봇 보조 수술 에피센터(Epicenter)로 선정, 전 세계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폐암 환자 5년 생존률은 61.5%로 국내 평균(38.5%)을 크게 상회하며, 미국 평균(31%) 대비 두 배 수준의 세계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폐암학회 병기결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폐암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Session 1. 최소침습수술 혁신이 이끄는 미래

Session Title

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언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Abstract

지역 간 의료자원과 전문 인력의 불균형은 중증·고난도 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지며, 의료 형평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 성과와 의료 질 중심의 보상체계(Value-Based Healthcare)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개별 기관의 진료 역량을 넘어 중증·고난도 진료, 교육, 연구,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의료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살펴보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변화를 논의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로봇 보조 수술이 중증·고난도 치료 역량 강화와 지역 간 치료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Session 1. 최소침습수술 혁신이 이끄는 미래

Session Title

로봇수술의 가치 재정의: 기술 혁신과 일반 진료로의 합리적 이행 과정 고찰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Abstract

최소 침습 플랫폼은 혁신적 대안에서 표준 치료로 진화했으나,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로봇 수술(RAS)과 복강경을 동등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안전하게 일반 진료(General Practice)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RAS는 췌장 상연 림프절 광청술 등 고난도 조작 시 의사 제어 입체 시야와 다관절 기구(Vessel Sealer Curved)를 통해 기술적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임상 1~3상을 통해 비용을 정당화하듯,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고비용의 로봇 수술 역시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장기 생존율의 우월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편리함이 췌장 누공 등 술후 합병증 감소라는 실질적 단기 성적의 향상으로 직결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RAS의 수술자에 대한 인체공학적 장점은 입증되었으나, 환자의 치료 성적 향상 없이 의사의 편의만을 위한 고비용 지불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일반 진료 편입과 급여화를 위해서는 장기 종양학적 생존율의 추구보다는 수술 후 이환율 감소 및 입원 기간 단축 등 단기 수술 후 성적의 뚜렷한 향상을 복강경수술과의 비교 결과를 전향적 연구를 통해 쌓아가야 합니다.

Redefining the Value of Robot-Assisted Surgery: Navigating the Spectrum of Technical Innovation and Transition into General Practice

Han-Kwang YANG, MD, PhD, FACS, Hon ASA, Hon ESA, Hon JSES
President, National Cancer Center
KOREA

Abstract

Background: Over the past two decades, minimally invasive platforms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surgical oncology, transitioning from innovative alternatives to established modalities. The introduction of robot-assisted surgery (RAS) has addressed certain ergonomic and technical limitations of conventional laparoscopy by offering stable, high-magnification, surgeon-controlled stereoscopic visualization and multi-jointed articulation. However, global clinical guidelines, including the NCCN and domestic standard consensus statements, continue to recommend RAS and conventional laparoscopy as equivalent options based on current long-term oncological data. The clinical utility of RAS remains characterized by a three-tier framework governed by spatial dynamics and objective outcomes:

1. Widespread Adoption in highly confined pelvic spaces (e.g., radical prostatectomy) where it has expanded clinical indications,
2. Active Evaluation in open abdominal spaces (e.g., gastrectomy and rectal resection) where its long-term cost-effectiveness and comparative superiority are actively being scrutinized against high-quality laparoscopy, and
3. No Practical Utility in hyper-emergency or tactile-dominant procedures.

Objective: By framing current minimally invasive techniques within this objective three-tier classification, this keynote address aims to analyze the essential scientific and clinical processes required for a newly developed medical technology to successfully and rationally transition from an early-stage technological innovation into standard general practice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Current Perspectives & Clinical Value: Accumulating data from global and domestic registries demonstrates that RAS provides technical convenience within open-space abdominal oncology, particularly in executing complex maneuvers such as meticulous D2 lymphadenectomy, suprapancreatic lymph node dissection, and secure intracorporeal anastomosis. The emergence of next-generation, platform-specific instrumentation—such as the Intuitive Curved Vessel Sealer—fully utilizes wristed articulation to assist in dissection around complex vascular anatomy. Whil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dvanced engineering shows promise in enhancing technical precision, its capacity to convert this technical ease into improved short-term clinical outcomes—specifically the reduction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uch as pancreatic fistulas or anastomotic leaks—remains a critical subject of ongoing academic verification.

INTUITIVE 360 KOREA 2026

Jul 25(Sat), 2026 | Walkerhill Seoul Hotel, South Korea

The Challenges of General Practice Transition: Just as newly developed oncological pharmaceuticals must undergo rigorous, industry-funded Phase I through III clinical trials to scientifically validate their therapeutic efficacy before their substantial financial costs can be justified, a premium and high-cost medical technology like RAS must be held to the same evidentiary standards. For any high-end engineering platform to justify its utilization in routine general practice—and ultimately qualif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it must generate definitive, high-level clinical evidence through structured, systematic trials. Currently, the widespread transition of RAS into general practice faces a structural bottleneck due to the lack of long-term, comparative cost-effectiveness data. Because RAS represents a financially invasive technology with substantial premium costs compared to conventional laparoscopy or open surgery, establishing mere non-inferiority is insufficient; rigorous trials should ideally set robust hypotheses to challenge oncological superiority in long-term survival. Nevertheless, based on these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nsidering the intrinsic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botic platforms, the system holds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demonstrating immediate superiority in short-term perioperative outcomes, such as the minimization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the distinct ergonomic advantages that RAS offers to the operator—including reduced physical fatigue, multi-channel natural dexterity, and intuitive hand-eye coordination—are well-documented and validat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registries and workload assessment data. However, the fundamental dilemma remains: without a concomitant and tangible improvement in actual patient-centered outcomes, health insurance providers and patients will face a difficult decision regarding whether they are willing to bear substantial premium costs solely to secure the convenience and comfort of the surgeon. Therefore, clinical evaluations must place closer, more pragmatic scrutiny on pro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postoperative morbidity and total hospital stay to justify universal integration and public funding.

Conclusion: For robot-assisted surgery to rationally expand its role and successfully integrate into the continuum of general oncological practice, the surgical community must prioritize robust, prospective, multicenter clinical research characterized by scientific rigor. Proving definitive superiority in long-term oncological survival while simultaneously demonstrating distinct, highly probable improvements in short-term perioperative outcomes over conventional methods is the mandatory scientific pathway for any high-cost emerging technology. Strategic academic evaluations by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ions will be pivotal in defining the criteria needed to rigorously assess advanced platforms, ensuring

Session 1. 최소침습수술 혁신이 이끄는 미래

Session Title

세브란스병원 로봇 보조 수술 5만례 달성의 의미와 미래 비전

강상욱 연세암병원 부원장

Abstract

세브란스병원의 로봇 보조 수술 5만례 달성은 단순한 누적 건수를 넘어, 기술의 진보, 이를 실제 진료 현장에서 구현해낸 임상 역량, 그리고 선택과 신뢰로 이어진 환자 경험이 함께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 강의는 로봇 보조 수술 도입 초기부터 적응증 확대와 표준화 과정을 거쳐 5만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마일스톤을 살펴보고, 갑상선 수술을 포함한 임상 성과와 환자 접근성 개선의 흐름을 통해 로봇 보조 수술이 '특수 치료'에서 '표준 치료'로 이동하는 변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10만례로 향하는 여정에 향후 AI와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Session 2. 디지털 전환의 힘: 최소침습수술의 새로운 가능성

Session Title

Sharp Health System Digitally Enabled Robotic Program

Mr. Fahd Benjalil CFO/COO, Sharp Coronado Hospital

Abstract

로봇 보조 수술 프로그램은 의료기관 경영진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세션에서 Sharp Coronado Hospital의 CFO/COO인 Fahd Benjalil은 Sharp Healthcare가 로봇 보조 수술 프로그램을 장비 투자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 Quintuple Aim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상적, 운영적,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서비스 라인으로 만든 과정을 공유합니다. 경영진과 임상 리더십 간의 소통,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표준화된 프로그램 인프라, 그리고 로봇 보조 수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Sharp는 최소침습수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헬스 시스템 전반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인사이트, 거버넌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로봇 프로그램 구축을 돕고, 로봇 보조 수술을 장기적인 의료 혁신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What does robotic-assisted surgery look like from the perspective of a healthcare executive? In this session, Fahd Benjalil, CFO/COO of Sharp Coronado Hospital, will share how Sharp Healthcare transformed robotics from a capital technology investment into a strategically managed service line that advances the Quintuple Aim while delivering measurable clinical, operational, and financial value. Through executive-physician alignment, data-driven governance, standardized program infrastructure, and expanded access to robotic surgery, Sharp accelerated minimally invasive surgery adoption, reduced healthcare costs, and drove revenue growth across the health system. Attendees will gain an executive-level perspective on building a sustainable robotics program that leverages digital insights, governance, and next-generation technology to position robotics surgery as a catalyst for long-term healthcare transformation.

Session 2. 디지털 전환의 힘: 최소침습수술의 새로운 가능성

Session Title

Sharp Health System Digitally Enabled Robotic Program

Dr. Pamela Lee Chair, Department of Surgery, Sharp Memorial Hospital

Abstract

Dr. Pamela Lee는 응급 진료 전반에서 로봇 보조 수술의 임상적 영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Sharp Healthcare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원 기간, 합병증, 수술 부위 감염, ICU 이용, 재입원, 개복 수술로의 전환을 포함한 주요 지표 전반에서 환자 결과의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과 분석, 결과 벤치마킹, 그리고 지속적인 데이터 리뷰를 통해 디지털 기반 로봇 보조 수술 생태계가 운영 효율성, 집도의 자율성, 프로그램 확장성, 그리고 최소침습수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능의 결합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로봇 보조 수술 프로그램 성장을 이끌고, 환자, 외과의, 그리고 헬스 시스템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Following the executive perspective on building a high-performing robotic surgery program, Dr. Pamela Lee will share the clinical impact of robotic-assisted surgery across elective, acute, and emergency care. Drawing on Sharp Healthcare's experience, she will highlight measurable improvements in patient outcomes, including reduced length of stay, complications, surgical site infections, ICU utilization, readmissions, and conversions to open surgery. Dr. Lee will also demonstrate how digitally enabled robotic ecosystem—supported by performance analytics, outcome benchmarking, and continuous data review—has helped advance operational efficiency, surgeon autonomy, and program scalability while expanding minimally invasive surgery access across the continuum of care. Attendees will gain practical insights into how clinical leadership, powered by data and digital tools, can drive sustainable program growth and deliver meaningful value for patients, care teams, and health systems.

Session 3. 병원 혁신사례

Session Title

지필공 달성을 위한 로봇 보조 수술의 가치: 광주보훈병원 사례 발표

오병석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부장

Abstract

광주보훈병원 사례는 로봇 보조 수술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로 실현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 보조 수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의료 이용 구조로 인해 발생하던 지역 간 의료격차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의료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보조 수술 도입 이후 수술 건수 증가, 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및 ESG 가치 창출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해 온 혁신 사례를 공유합니다.

Session 3. 병원 혁신사례

Session Title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 울산대병원 로봇 수술 12년

한명월 울산대학교병원 부원장

Abstract

울산대학교병원 사례는 첨단 의료기술의 선제적 도입이 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한 울산대학교병원은, 치료의 질과 의료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로봇 보조 수술을 핵심 전략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로봇 보조 수술의 임상적·운영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산대학교병원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의료 경쟁력 강화를 실현해 온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Session 3. 병원 혁신사례

Session Title

Epicenter에서 표준으로: 전략적 투자가 만든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수술

김홍관 삼성서울병원 교수 / 폐식도외과 과장 / 폐식도암센터 센터장

Abstract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는 고난도 폐·식도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기반으로, 로봇 보조 수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의 공유 기반 접근 방식은 수술 일정과 팀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였으나, 차세대 집도의들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발전시키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젊은 집도의들이 안정적으로 수술 경험을 쌓고 역량 개발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Access'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상과 수술 운영 전반에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으며,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어떤 임상적, 그리고 운영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그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INTUITIVE



사전등록 페이지